

2020 년 9 월 27 일 “아브라함 이야기(4) 용기와 헌신의 사람”(창 14:17-24)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좋은 사람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뿐더러 인격의 모든 요소에 스민 죄성으로 인하여 자기중심성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넘어 주님께서는 어떻게 참된 변화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 자신의 육체는 신뢰할 만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빌 3:4-6) 말했습니다. 어떤 잣대를 들이 대어도 떳떳하고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환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세상에 대한 판단의 잣대를 모두 해로 여기게 되는 안목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꾀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일이 내게 일어나면 내적 갈등이 깊어집니다. 기존 가치관이 깨지고 새 가치관이 세워지는 데는 내적 process 가 오래 걸립니다. 바울의 경우 예수님 만나고 안디옥에서 첫 사역을 하기 전까지 11 년 정도 이러한 내적 여정의 길을 걸었습니다.

더 깊은 통찰을 갖고 본다면, 좋은 사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어떤 것이라도 포기하고 내가 달려갈 길을 찾는데 있습니다. 새롭게 열린 선한 목적을 향해(예: 사랑) 올인하는 것이 좋은 사람 되려고 애쓰는 것보다 성경적인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아브람의 변화

창 14 장은 조카 롯이 속한 소돔이 그 지역의 연합군에게 패배하여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잡혀갔을 때 아브람이 종들을 데리고 기습작전을 감행하여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놀라운 전사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이집트에서 살기 위해 거짓말하며 아내를 포기하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이 용기는 어디서 난 것일까요?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도 아니고, 성취감을 위해서도 아니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지 조카 롯과 가족들을 향한 이타적 형제 사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용기란 선한 목적을 바라보며 어려움/비난/두려움이 있어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입니다. 누가 용기를 대신 해줄 수 없고, 결국은 내가 가야할 길을 가게 하는 힘입니다(‘믿음은 존재의 용기이다’ - 톨리히)

전쟁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에 아브람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 아브람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14:18). 이것을 통해 가나안 땅의 종교의 한 일면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가나안은 다른 문명 지역에 비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곳이라고 봅니다. 멜기세덱 같은 사람도 있었고, 후에 23 장을 보면 헷 족속 왕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고 말합니다. 15 장 할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람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자 아브람은 획득한 소유의 열의 일(십일조)을 드렸습니다. 십일조라는 행위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열의 일을 대상에게 바침으로써 종속의 고백을 지닌 행위였습니다. 이런 의미를 안 아브람이 열의 일을 드린 것은 자기 생명, 가족들, 모든 소유가 다 주님 것이라는 고백의 행위인 것입니다.

사실 소득의 열의 일을 드린 것이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열의 하나의 의미는 열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은 여인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눅 15 장). 그녀가 잃은 것을 찾고 기뻐하는 이유는 그 하나가 열의 중심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하나는 열이라는 전체를 이루는데 필연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자기가 얻은 축복과 소유가 모두 주님이 주신 것으로서 온전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 또한 베풀습니다. **13:13**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소돔 왕에게 소유를 돌려주면서 네 재산으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소돔 왕은 아브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임을 인정하고 악한 것으로부터 돌이켜야 했는데, 19 장의 심판 기사를 보면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맺음>

아브람이 13-14 장을 통해서 어떤 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걷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배려와 양보와 용기와 헌신과 나눔의 실천이 일어나는 생명력 있는 여정을 보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넘어서서 생명의 사람으로 드러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롬 12:1-2 에서 말해주는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본질적 의미의 예배를 사모하며 공적 예배를 통해서 삶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힘을 얻고 확증 받으시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1. 아브람이 어떻게 변화와 성숙을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를 변화되게 하였습니까?
2.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신앙의 성숙, 성품과 안목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리스트를 만들어보고, 우선순위도 매겨보십시오.